

KEA 협회 주요사업 현황 >>>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안전 등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의 진흥·문화의 창달, 공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비전 등을 주관 부서별로 소개합니다.

기술처

● 주요업무 : 전력신기술 지정, 표준품셈, 기능인력 평가, 기타 조사연구 용역사업

□ 전력신기술 지정



- 전력분야 신기술의 유도과 발굴을 위한 전력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기술처)는 1997년 12월 정부로부터 전력신기술관리법상 전력신기술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력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유한 자가 신기술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협회에서 주관하여 심사하며, 심사에서 통과한 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표준품셈



- 1985년부터 정부로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업무를 위임받아 품셈 유지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공통적용기준, 송전·변전·배전·내선 설비공사, 계측 및 자동제어·전기철도, 항공등화 설비공사의 8개 분야 6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 기능인력 평가

- 2006년 4월 한국전력공사와 배전기능 교육 평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양성한 기능인력에 대하여 자격평가와 통합적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숙련된 기능인력의 적기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교육기관에서 한전의 배전공사를 수행할 가공배전, 활선, 무정전 및 지중배전 전공 등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i n t e r v i e w * 인터뷰

전기산업 발전위한 필수 업무 수행

기술처장 이종섭

기술처에서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전력신기술, 표준품셈, 기능인력 평가입니다. 이 세가지 분야는 국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업무로서,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전력 신기술은 1997년 국내 최초 1호 신기술이 지정된 이후, 국내 개발 또는 외국 기술도입을 개량한 총 74개의 기술이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품셈의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적정한 전기공사비 산정,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숙련된 기능인력의 적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변전설비 고장예방 체계분석 및 적용방안 개발 등 전기관련 다양한 조사·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EA